

▶ 유튜브 이용자수, 카카오톡 '턱밑 추격'

구글 등 대기업 韓시장 잠식...카톡-유튜브 월 사용자 역대 최소차 디지털 정보 주권 '빨간불'...국내 플랫폼 과도한 규제 원인 지적도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다. 사람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유튜브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카카오톡 대화창에도 애써 글을 적기보다는 유튜브 링크 하나를 '딱' 올린다. 요리, 경제, 과학, 패션, 반려동물까지 없는 게 없으니 오죽하면 '현대의 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튜브 월 평균 시청시간은 30시간 34분으로 세계 평균(23시간 24분)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IT·플랫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13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톡의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4155만8838명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2위인 구글의 유튜브(4115만7718명)와의 차이는 40만1120명에 불과했다. MAU는 한 달에 최소 1회 이상 서비스를 쓴 이용자 숫자로 앱의 실제 사용자를 분석하는 지표다.

50만명대였다가 지난달 40만명대까지 줄었다. 이는 2020년 5월 모바일인덱스가 집계된 이래로 월간 기준 역대 최소 격차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유튜브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MAU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과 유튜브의 MAU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30대 사용자의 앱 소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래 10대 이하와 20대를 중심으로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지난달과 5월 MAU 분석에서 유튜브가 '30대가 가장 많이 쓰는 앱' 1위를 차지했다.

구글의 유튜브가 음원 시장에서도 국내 최대 플랫폼인 카카오의 멜론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모바일 음원 시장 MAU를 보면 1위 멜론(665만1897명)과 2위 유튜브뮤직(580만7421명) 차이가 84만4476명이었다. 지난달 월간 기준 처음으로 두 플랫폼의 MAU 차이가 100만명 아래로 좁혀진 것이다. 유튜브뮤직의 사용자



구글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IT·플랫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점유율(25.3%)도 25%를 처음 돌파했다. 유튜브는 이미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월간 총사용 시간 지표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앞질렀다. 지난달 모바일 기준 국내에서 유튜브를 본 시간은 약 15억2920만 시간으로, 2위 카카오톡(약 5억1876만 시간)과 3위 네이버(약 3억4554 시간)의 각각 2.9배, 4.4배에 달한다.

IT 업계에서는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플랫폼 시장 잠식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은 넷플릭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은 인

스타그램,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가 이미 1위다.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영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대가로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해외 CP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구글코리아는 수익의 대부분인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를 매출 실적에서 제외해 법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된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연합뉴스

쏟아 IT 정보

KT, 위협 메일 차단 서비스

KT는 국내 보안 솔루션 기업들과 연합해 AI 지능형 지속 위협(APT) 분석 기술에 기반을 둔 'KT 시큐어 지능형 위협 메일 차단' 서비스를 선보였다.

연합체를 구성한 기업은 안랩, 지란지교시큐리티, 시큐레터, 넷엔씨큐로, 스팸 차단과 APT 관련 보안과 관련한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는 알려진 악성 메일과 광고를 차단하는 스팸 보안, APT 위협을 탐지하는 동적 분석 샌드박스, AI로 위협을 탐지하는 AI 분석 플랫폼으로 구성됐다.

이 서비스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설정을 변경하는 구동형 서비스로 제공돼 고가의 구축형 보안 시스템보다 비용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KT는 이 서비스의 1개월 무료 체험 행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카카오톡, 채팅방 숨기기 도입

카카오톡(카톡)에 활동하지 않는 채팅방에 대한 관리 기능이 생겼다. 카카오톡은 최근 카톡 업데이트를 통해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실험실에 도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 시범 도입된 서비스는 활동하지는 않지만 나가지 않은 일대일 채팅방과 그룹 채팅방을 보관하고 숨길 수 있는 채팅방 보관함 기능이다. 숨겨진 채팅방은 알림이 꺼지고, 카톡 애플리케이션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를 알려주는 '배지 카운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카톡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사용자는 실험실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채팅방을 길게 누르거나 화면을 좌우로 넘겨 '보관'을 선택하면 채팅방이 보관함으로 이동한다.

아울러 이번 업데이트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정식 기능으로 반영됐다. 이 기능은 지난 5월 실험실에 도입된 이후 3주간 약 200만명이 활성화한 정도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갤럭시 S23 '원 UI 6' 베타 운영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14 기반의 '원(One) UI 6'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베타 프로그램은 한국, 미국, 독일에 적용된다.

갤럭시 S23 시리즈 사용자는 One UI 6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갤럭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미리 체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사용자 의견은 공식 버전을 보완하는 데 반영된다.

One UI 6은 새로운 기본 글꼴을 제공하고, 삼성 키보드에 새로운 이모지를 추가하는 등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개선했다. 스크린 상단에 위치한 '빠른 설정창'을 통해 사용성도 개선했다.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개편했다. One UI 6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갤럭시 S23 시리즈 사용자는 삼성 멤버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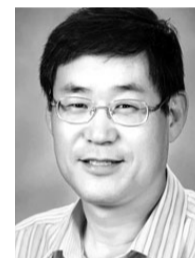
교통사고, 인공지능으로 미리 알 수 있을까?

국립광주과학관-GIST, 오늘 '과학스쿨'...류제하 교수 강연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이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이하 지스트)과 함께 16일 오후 7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8월 과학스쿨을 연다.

이번 강연에서는 융합기술학제학부 류제하(사진) 교수가 '교통사고를 인공지능으로 미리 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차 사고 예측법을 소개한다.

류제하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학위를 마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아이오와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인공지능 심층학습 및 기계학습,



로봇공학 그리고 가상현실 및 촉각기술 등이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과 GIST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과학스쿨'을 열고 어려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2023년도 과학스쿨은 온라인에서 사전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참조.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통신업계,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선호 콘텐츠·위치정보 등 제공

통신 업계가 시니어 맞춤형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어르신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IPTV 시니어 전용 서비스 'B tv 해피 시니어'를 운영하고 있다.

TV와 영화 등 어르신이 즐겨 보는 콘텐츠를 비롯해 건강 정보와 체조, 여행, 다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추억을 파는 극장' 특별관에서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 '보리수' 등 고전 영화 20여 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 영화는 일반 영화보다 2배 이상 큰 자막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시청을

도와 준다.

SK브로드밴드는 "시니어의 쇼핑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한 전자 상거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시니어를 위한 'KT 안심 박스' 부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월 3300원의 이용 요금을 내거나 실버 대상 요금제 가입 시 무료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어르신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위급 상황 시 가족 알림을 제공해준다.

이 밖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만든다"

美 연구팀 "파리 사체 추출 키틴으로 고흡수성 고분자 합성"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을 원료로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고품성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 A&M대학 캐런 올리 교수팀은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화학회 가을회의(ACS Fall 2023)에서 동물 사료 등으로 기르는 동애등에(black soldier flies)의 성충 사체에서 추출한 화학물질로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많은 단백질과 영양 성분이 들어 있는 유충이 동물 사료로 쓰이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해하는 데 활용되는 동애등에의 성충이 번식 기 후 그대로 버려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죽은 동애등에의 주요 성분이 곤충이나 갑각류의 딱딱한 외골격을 이루는 키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애등에 사체에서 키틴을 추출·정제했다.

연구팀은 이어 정제된 파리 키틴에서 아세틸기(acetyl group)를 떼어내 키토산(chitosan)으로 전환한 다음, 기능성 그룹을 붙이고 교차결합을 형성시켜 흡수력이 뛰어난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된 곤충 '동애등에' (Cassidy Tibbetts 제공)

한 하이드로겔 형태의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었다.

분석 결과 합성된 바이오플라스틱은 자기 무게의 47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 교수는 "동애등에 사체 물질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은 폐기하면 완전 분해되거나 소화되기 때문에 현재의 플라스틱 오염 같은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며 "이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